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적정성 검토

임형빈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주요 연구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07년)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됨
- 충청남도과 시군의 행정자료와 기록물을 수집, 관리, 이용을 위한 기록원 설립의 적정성을 판단함
- 기록원 운영의 사례 조사 결과 기록물 관리와 전시 관람&시민 참여, 연구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충남 기록원의 적정 규모는 16,500(150만권) ~ 9,990(100만권), 시설 수요는 15.6만~9.4만명임
- 지불의사가격(WTP)을 활용한 편익은 전국 기준 382억원, 충남 기준 16.6억원 정도로 추산됨
- 대체 편익으로서 공간활용 편익 추산 결과 연간 17억원이 발생함

정책 제안

- 기록원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 시설 설치가 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
- 시설 건립시 비용 절감을 위하여 건물의 신축보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시설 활용시 행정 기록물 보관과 기록물 활용한 전시, 교육, 문화활동 프로그램 진행이 필수적임
- 충남 기록물은 2023년 기준 소장 107만권으로 매년 3.1만권 생산되고 있어 향후 기록 물량에 따라 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2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기록원 설립 현황과 사례	7
1. 기록원 설립과 추진 현황	8
2. 기록원 설립 사례	9
3. 시사점	29
제3장 설립 적정성 검토	31
1. 규모의 적정성	32
2. 경제적 적정성	36
제4장 연구종합 및 정책 제언	57
1. 연구의 요약	58
2. 정책 제언	60
참고문헌	61

표 목차

〈표 1-1〉 기록원 유사 기능 간 역할 차이	3
〈표 2-1〉 타 지역 추진 현황	8
〈표 2-2〉 경상남도기록원 공간현황	11
〈표 2-3〉 서울기록원 층별 공간현황	16
〈표 2-4〉 청주시 기록관의 조직 및 업무	22
〈표 2-5〉 LAC 업무 기능별 인력구조	28
〈표 3-1〉 영역별 도입기능 및 면적	32
〈표 3-2〉 사례검토에 따른 적정규모 산정수요 추정 결과	33
〈표 3-3〉 수요산정을 위한 준거시설 선정	39
〈표 3-4〉 준거시설의 방문객 수 현황	39
〈표 3-5〉 지역별 인구수를 적용한 잠재인구 산정: 대통령기록관	40
〈표 3-6〉 대통령기록관 이용률 산출	41
〈표 3-7〉 지역별 인구수를 적용한 잠재인구 산정: 천안박물관	41
〈표 3-8〉 천안박물관 이용률 산출	42
〈표 3-9〉 지역별 인구수를 적용한 잠재인구 산정: 안성3.1운동기념관	42
〈표 3-10〉 안성3.1운동기념관 이용률 산출	43
〈표 3-11〉 충남기록원 잠재이용인구 산정	43
〈표 3-12〉 중력모형을 이용한 충남기록원 수요추정 결과	45
〈표 3-13〉 중력모형을 이용한 충남기록원 수요추정 결과	46
〈표 3-14〉 편익 추정 방법	49
〈표 3-15〉 편익항목 선정	51
〈표 3-16〉 WTP 적용에 따른 총편익 산정(전국)	52
〈표 3-17〉 WTP 적용에 따른 총편익 산정(충남도)	52
〈표 3-18〉 연도별 편익 현금 흐름	53
〈표 3-19〉 업무시설 비교사례 개요	54
〈표 3-20〉 업무시설 비교가 산정	55
〈표 3-21〉 공간활용 편익 산정	55
〈표 3-22〉 공간활용에 따른 연도별 총편익	5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6
[그림 2-1] 서고, 전시실 및 탈산소독실	11
[그림 2-2] 경남기록원 조직도	12
[그림 2-3] 서고, 전시실 및 기획전시	17
[그림 2-4] 서울기록원 조직도	18
[그림 2-5] 행정자료실, 기록홍보관 및 전시구성	21
[그림 2-6]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	24
[그림 3-1] 중력모형 산출식	38
[그림 3-2] 경제적 가치의 종류	47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07년)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책정된 기록물에 대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
 - 국가기록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영구기록물을 이관받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관리·보존을 법정 의무화함. 국가기록원에서는 준영구 기록물과 영구기록물을 구분하여 이관했으나, 현재는 기록자치로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 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물의 수집, 관리, 보존,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함
 - 주요 역할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지도·감독 및 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 정보제공서비스 시설 설립과 중요 데이터와 기록들의 활용과 보존을 위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공공적 성격을 띤 자료들의 선별과 환류과정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음

■ 기록원의 기능적 역할 확대

- 기록원의 기능과 역할은 기록물 수집, 관리, 운영과 총괄 관리 기능 이외의 전시, 교육, 연구·교류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서울기록원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와 강연, 견학·투어 프로그램이 진행중임
- 충남은 내포 신도시 내 충남도서관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이 일부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 대응에 제한적인 상황임
 - 유사시설인 박물관과 도서관의 경우 관리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라는 차이에서 정보에 대한 제공서비스 방법과 운영프로그램, 활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황금숙, 2008)

〈표 1-1〉 기록원 유사 기능 간 역할 차이

구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지역 대표 도서관	박물관
관리 대상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자료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등 기록정보와 행정자료)	인쇄·필사·시청각·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장애인 대상 정보자료	인간과 환경의 유형·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
기능과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기록관리 정책·제도 운영 ■ 중요기록물의 수집·관리 ■ 지역 향토자료의 수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수집·정리·분석·보존 ■ 대중에게 제공,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독서활동·교양·문화활동·평생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의 수집·정리·관리 ■ 보존 및 전시 · 박물관 자료에 대한 조사및 연구 ■ 소장 자료에 관한 행사, 간행물 제작과 배포

자료: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추진 기초조사 연구(2018), 충청남도

■ 타 지자체 운영 현황

- 지방기록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경상남도는 시설과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2024년 2월 개원 예정, 경상북도는 시설 설치가 진행중임
- 전라북도, 대구광역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추진 기초조사 연구(2018),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기본계획(2020)
- 기록원 설립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 시설 설치가 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

- 최근 설립된 경남기록원은 유희청사 리모델링하여 건립되었으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기록원도 유희 시설을 활용한 시설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과 도와 시군에서 생산되는 행정자료와 기록물을 수집, 관리, 이용을 위한 기록원 설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연구임
- 기록원 설립 필요성은 기록물 관리와 활용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추진 사례를 통하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기 수행된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추진 기초조사 연구(2018)에서 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시설 입지를 위한 부지가 변경되면서 시설 건립을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기록원 설립 기초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입지와 경제적 타당성 분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 이러한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록원 설립과 관련한 타 지역의 추진 현황과 사례, 추진 방향을 조사함
 - 둘째, 기록원 설립을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이용 수요와 효과, 시설 규모 등의 기초 분석으로 적정성을 검토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기록원 입지 예정지로서 충청남도 전역으로 함
- 내용적인 범위는 기록원 설립의 사례, 경제적 적정성, 시설 입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적정성을 내용적 범위로 설정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기록원 설치를 위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됨
- 기존 기록원 건립 추진의 기초조사 연구의 내용적 중복을 배제하고 시설 입지를 위한 적정성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함
- 타 지역 사례와 정책 동향, 추진 방향 등의 문헌조사와 적정성 판단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함
 - 타 지역 사례, 정책 : 문헌 조사, 현장 조사
 - 적정성 검토: 경제적 측면(타당성 분석)
 - 시설관련 전문가, 도 관련 부서 자문과 인터뷰

3.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4장으로 구성됨
- 2장에서는 기록원 설립과 관련한 타 지역의 사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조사함
- 3장에서는 기록원 설립의 적정성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며, 이때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이용 수요와 시설의 편익, 규모를 분석함

- 마지막 4장에서는 연구 종합에서 정책 제언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함

	구분	주요내용	수행방법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방법과 범위	-
제2장	기록원 설립 현황과 사례	· 타 지역 추진 현황과 방향 · 사례조사	· 데이터, 기존 자료 활용
제3장	설립 적정성 분석	· 경제적 적정성 분석 - 수요, 비용, 시설 규모	· 조사, 분석 · 현장 조사
제4장	연구종합	· 연구의 결과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 연구의 종합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기록원 설립 현황과 사례

제2장 기록원 설립 현황과 사례

1. 기록원 설립과 추진 현황

1) 추진 현황

■ 2개소 운영중(서울, 경남), 2개소 개원 예정(경기, 경북)

- 강원, 전남, 제주는 부지선정, 조성 방식(신축, 유희부지 활용, 리모델링)등의 사항 논의 중
- 충남의 경우 기초조사 연구(2018) 후 후속 추진이 부재한 상황

〈표 2-1〉 타 지역 추진 현황

구분	지역	추진 현황	후속 추진 현황
1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조례 제정(2017. 7.) 	개원(2018. 05.)
2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2013) ■ 관련 조례 제정(2014. 1.) 	개원(2019. 5.)
3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천년 기록원 건립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8) ■ 기본계획 수립(2020. 4.) 	개원 예정(2024. 2.)
4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대구경북연구원, 2019) ■ 기본계획 수립(2020. 4.) 	추진중 (2026 개원예정, 안동 도청신도시)
5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강원연구원, 2020) ■ 관련 조례 제정(2022. 6.) 	추진중(부지선정)
6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 및 방향 설정 연구(제주연구원, 2020) ■ 기본계획 수립(2021) 	추진중

구분	지역	추진 현황	후속 추진 현황
7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2020) ■ 기본계획 수립 중(2023) 	추진중
8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2019. 07.) ■ 관련 조례 제정(2019. 12.) 	없음
9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2020. 10.) ■ 관련 조례 제정(2019. 6.) 	없음
10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방안(대전세종연구원, 2017) ■ 관련 조례 제정(2020. 7.) 	없음
11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기록원 설립 필요성 및 방향 설정 연구(부산연구원, 2018) 	없음
12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 (광주전남연구원, 2019) 	없음
13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충북연구원, 2019) 	없음
14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 연구(울산연구원, 2019) 	없음
15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추진 기초조사 연구(2018) 	없음

2. 기록원 설립 사례

1) 국내 사례

(1) 경상남도 기록원

□ 개요

- 경상남도기록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2018.5.)한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임. 기록자치를 구현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함
- 경남 지역 내 균형발전 및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도청 산하 공공기관이 서부경남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유희청사 활용방안을 모색함

- 용역수행 결과,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을 통해 경상남도기록원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도출됨
- 타당성 조사 연구를 종료한 이후,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을 추진함. 세부 추진 과정은 아래와 같음
 - 2015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정밀 안전진단(5월), 원가계산 용역 및 조성계획 수립(8월)
 - 2016년: 설계용역 진행(1월~9월), TF팀 구성(7월), 건축물 경관심의 및 원가계산용역(8월), 착공식(12월)
 - 2017년: 조례 제정(7월), 건축물 준공(12월)
 - 2018년: 조직 신설(1월), 홈페이지 구현(3월), 비전자기록물 시범이관(4월), 개원식(5월)
- 경상남도기록원은 2015년 2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준비과정을 통해 2018년 5월 21일 개원함

□ 위치 및 공간현황

-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
 -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시로 이전함(2014.7.)으로써 남게 된 기존건물의 (6,584㎡)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경상남도기록원을 건립함
 - 경남도청 및 창원대와 접근성이 높아 업무 협의가 용이함
 - 운영시간: 09:00 ~ 18:00 (토요일·공휴일 휴원)
- 시설은 기록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서고’, 탈산·소독 및 보존처리공간, 도민 기록서비스 문화향유를 위한 전시실과 체험실 등으로 구성됨
 - 경상남도기록원의 ‘서고’ 수용량은 약 56만 권이며, 문서·도면·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음
 - ‘서고’는 일반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등 기록 매체의 유형에 따라 온도, 습도 등 보존환경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필름매체 서고, 행정박물관 서고 등 형태로 운영됨

〈표 2-2〉 경상남도기록원 공간현황

구분	계	보존 공간	작업 공간	민원 공간	업무 공간	부대 공간
공간비	100%	39%	10%	9%	3%	39%
면적 (㎡)	6,915.2	2,694.5	720	610	184.9	2,705.8
주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서고 • 민간기록보존 • 자기매체보존 • 필름매체보존 • 행정박물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산소독실 • 하역/인수실 • 평가/분류실 • 수선작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전시실 • 교육/회의실 • 기록체험장 • 열람실 •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전기,통신 • 공조실 • 복도 • 화장실 • 휴게실

자료: 이재민·송양호 외(2021) 인용

- 지하 1층은 행정박물 및 민간기록, 필름매체 서고 등이 있음. 지상 1층에는 전시실, 체험실, 회의실 등이 조성됨
- 별관 1층 증축동은 기록물 이관을 위한 문서 인수실과 탈산소독실, 정리 작업실 등이 위치함
- 지상 2층은 기록연구실과 사무실 등 업무공간이 있음. 3층과 4층에는 복원실과 일반서고, 5층에는 통신실, 전산실이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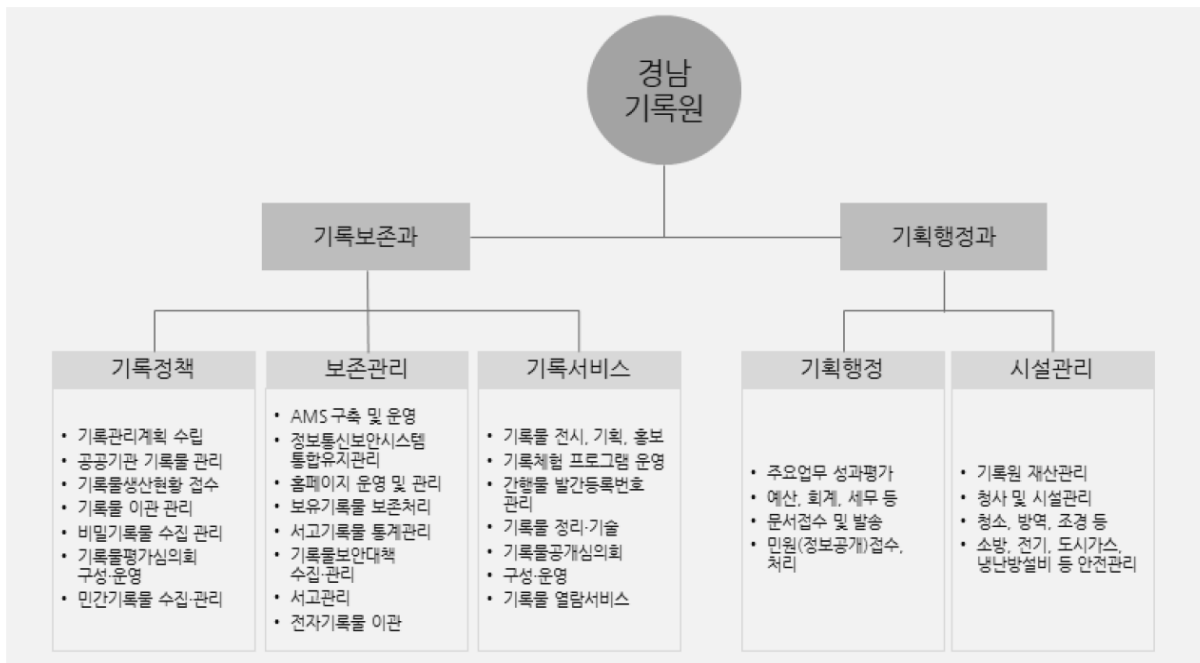


[그림 2-1] 서고, 전시실 및 탈산소독실

자료: 이재민 외(2021)

□ 조직구성 및 운영업무

- 경상남도기록원은 경상남도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기록원장(4급)을 중심으로 2개의 과(기획행정과, 기록보존과)와 5개 팀(기획행정, 시설관리, 기록정책, 보존관리, 기록서비스)으로 구성됨
- 기획행정과는 기본적 운영이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기록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기록보존과는 기록정책, 보존관리, 기록서비스 3개 담당으로 이루어짐. 기록정책은 정책적 부분과 기록물 수집을 주로 담당하고 보존관리에서는 기록물에 대해 보존처리를 하는 업무와 전자문서 관련 시스템 업무를 수행함. 기록서비스는 기록을 서비스하기 위해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하는 자원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실제 도민 대상으로 전시, 열람,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등 대민서비스를 수행함
- 경상남도 기록원 내 인력은 현재 1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력은 기록연구사와 학예, 사서, 전산, 건축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됨



[그림 2-2] 경남기록원 조직도

자료: 김지호·윤은하(2022) 인용

- 기록원의 주요 기능과 업무는 아래와 같음

- 첫째,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보존
- 둘째,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통계 작성·관리,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기록물 관련 향토자료 수집
- 셋째, 보존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 제공을 위한 콘텐츠 구축 사업 추진
- 넷째, 열람·전시 등의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운영, 소장기록물 검색 및 열람서비스 등 대도민 서비스 제공

□ 주요 실적

-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 중요기록물을 재이관하여 기록자치의 기틀을 마련함. 도 중요기록물의 자체 관리 및 직접 서비스를 위한 연차별 재이관 계획에 따라 2020년 8.3만 권, 2021년·2022년에는 각 5만권, 2023년 4.3만 권을 이관할 예정임
- 기초수선실 기록물 복원실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보존·복원 환경을 조성함. 복원장비는 29종 35개, 재료 117종 1,018개를 구매함. 종이 기록물(창녕군 해방전 수형명표)을 시범 복원완료함
- 함께하는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이용자 친화서비스를 제공함. 기록물 정리 동영상 외 12개의 콘텐츠를 개발·제공함. 기록의 날(6월 9일)을 기념해 도민참여 이벤트를 개최함
- 토털아카이브 체계구축을 위해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또한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각각 2월과 9월에 제정됨

□ 기타 특징

-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시실 규모와 구조에 제한이 있음. 전시실 접근로를 전시장으로 활용하였고, 판넬을 이용해 전시하고 있음
- 경상남도 기록원 도슨트 없이도 편안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가지 주제를 선정해 전시하고 있음

- 전시장 말미에 탁본체험과 같은 어린이 대상 기록관리 체험코너를 설치하고, 역대 기관장 휘호를 전시함. 향후 디지털 전시를 추진할 계획임

□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 경상남도기록원 개원 당시(2018)는 서비스 담당 조직이 부재하였으나, 2019년 1월 기록서비스 담당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이용자 프로그램을 준비함
- 홈페이지를 통해 기록원의 소장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음
- 2021년 이후, 공개가능한 기록물의 원문까지 제공하는 원문열람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임
- ‘도민아키비스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이 직접 민간기록물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도민이 기록의 ‘활용자’이면서 ‘생산자’ 그리고 ‘수집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함. 이를 통해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비전 및 목표

-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관리, 전자시스템 기반의 현대적 전문서고 구축,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형 공간조성이라는 배경 하에 경상남도 기록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
- 비전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록자치 구현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는 기록관리 선진화, 기록정보 자원화, 기록문화 활성화로 3가지임

(2) 서울 기록원

□ 개요

- 서울기록원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 개원함. 시정중요기록물에 관한 영구 보존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환경을 갖춘 기록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록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화를 추구함
 -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정기록을 포함해 시민이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다양한 기록정보를 축적하여 자원화 함

- 2007년 「공공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 지압기록물 관리관 설치 조항 신설로 독자적인 지방의 기록문화 형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록자치 개념을 도입함
- 2007년 12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2년 ‘소통·공유·참여의 열린 시정 2.0’의 일환으로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메트로폴리탄 아카이브로서 서울기록원 건립을 본격화 함
- OECD 국가 80% 이상이 수도 내에 시 자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 및 운영
- 서울기록원 건립을 통해 지방정부의 설명책임성과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과 시민이 함께 공동체 아카이빙을 실천하는 진정한 기록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 2013년 6월 ‘서울기록원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설립 및 운영근거의 당위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2015년 1월 정보공개정책과 내 기록문화팀이 신설되었으며, 2017년 9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서울기록원 조직을 명문화 함
- 2018년 1월 서울기록원이 정식 출범하였고, 2019년 5월 15일 개원식을 시행함

□ 건립 배경 및 목적

- 서울기록원은 기록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의미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성숙과 기록자치 개념이 도입 됨에 따라 건립됨. 국제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메트로폴리탄 아카이브’에서 출발함
-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최초 설치 및 운영, 최고 수준의 서울기록 관리 체계 구축, 지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확립 그리고 시민 알권리의 근원적 실현 등에 있음

□ 위치 및 공간현황

- 2018년 은평구 통일로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내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에 서울기록원을 준공하였음. 총 사업비는 49,895백만원(설계비 15억 원, 공사비 441억 원, 장비비

42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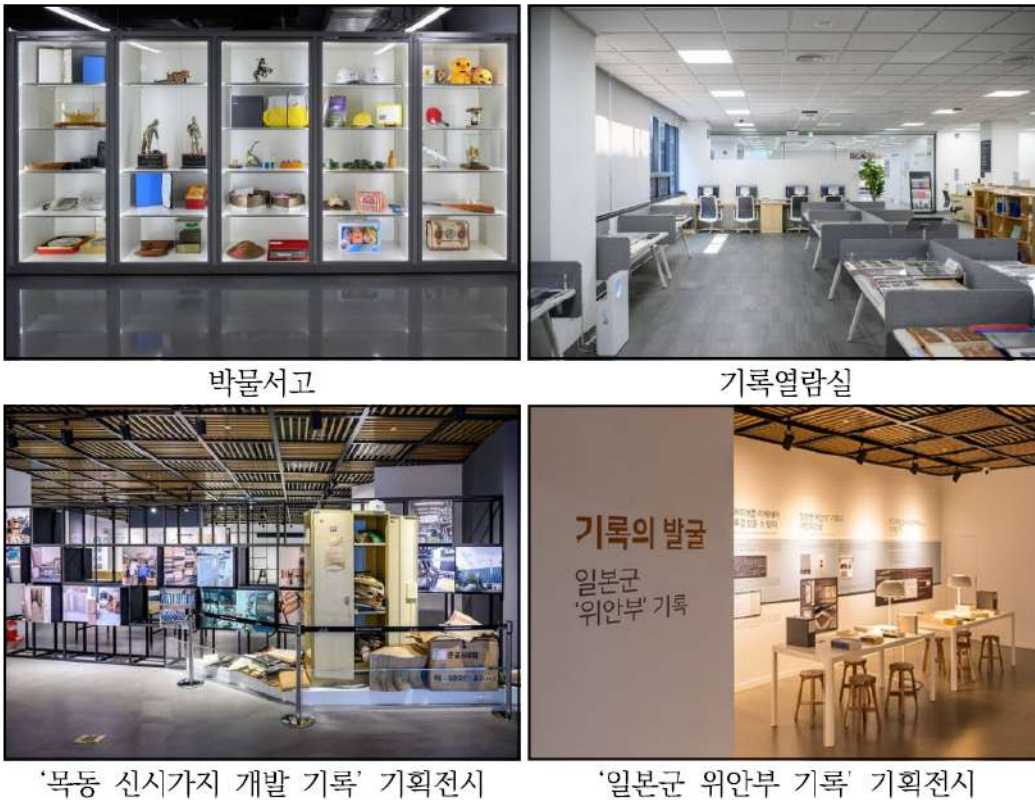
- 운영시간: 10:00 ~ 17:00(주말 운영, 월요일 휴관)
- 건물규모: 지하 2층/ 지상5층(연면적 15,004㎡)
- 서울기록원의 규모는 문서, 시청각, 행정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100만 점 이상 보존할 수 있는 큰 규모임
- 서울기록원은 단순히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를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전시관·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층별 공간 구성은 다음과 같음. 지하 1-2층은 서울시의 각종 문서·사진·영상·물품 등으로 구성된 ‘전문보존공간’임. 지상 1-3층은 자료실·열람실·개방형 서고·세미나실·기록보존관리 체험실·비지터 센터 등 ‘스토리와 공유 아카이브 콘셉트’, 지상 4층은 전자자기매체 작업실 및 기록물 복원 처리실 등 ‘시청각기록물 처리실’로 구성됨
 - 보존서고: 4,404㎡(13개실, 서가량 434개, 보관량 1,191천 권/점)
 - 전시/열람: 전시 공간(2-3층, 986㎡) , 열람실(2층, 216㎡)
 - 교육/세미나: 3층, 268㎡
 - 대강당: 5층, 219㎡
 - 주차장: 지상 1층, 89대(옥내 55대, 옥외 34대)

〈표 2-3〉 서울기록원 층별 공간현황

구 분	층별 면적(㎡)	공간 구성
지상 5층	1,170	대강당, 사무실, 회의실
지상 4층	1,207	MF작업실, 복원처리실, 전산관리작업실, 행정박물처리실, 시청각기록물처리실
지상 3층	1,594	행정박물보존서고, 기증(위탁)기록물서고, 민간기록물서고, 다목적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교과학습자료실, 체험실
지상 2층	2,306	전시실, 기록열람실
지상 1층	2,845	주차장, 이용자센터, 하역장, 인수등록실, 소독/훈증/탄산실
지하 1층	3,083	일반문서고, 역사박물관, 유물수장고, 전기실
지하 2층	2,799	일반문서고, 마이크로필름 보존서고, 전자기록보존서고, 기계실
합 계	15,004	

자료: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 서울기록원은 수집·기록화·재구성한 각종 소장기록 컬렉션을 제공함
- 둔촌주공아파트 컬렉션, 역대 서울시장 컬렉션, 웹·소셜미디어 컬렉션, 일본군 위안부 컬렉션, 주요 시정사진 컬렉션 등을 제공
- 목동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하여 기록물 발견 당시 모습을 재현한 공간, 둔촌주공아파트 경비실에서 수집한 기록물들을 기초로해 당시 경비실 모습을 재현한 공간 등 다양한 기획전시 공간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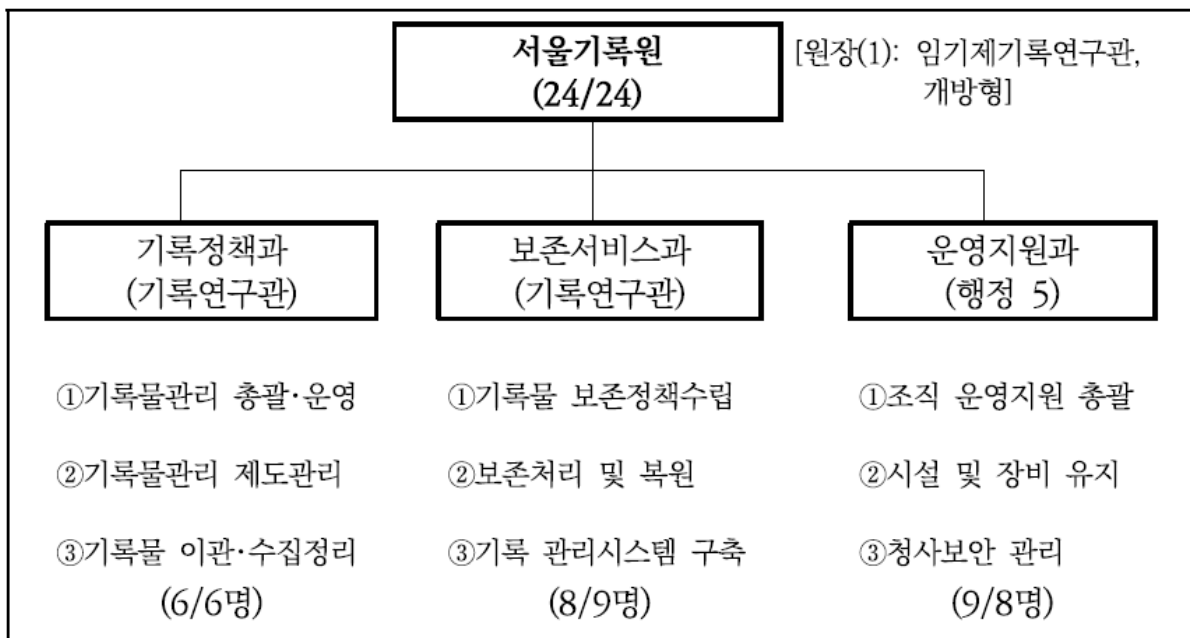
[그림 2-3] 서고, 전시실 및 기획전시

□ 조직구성 및 운영업무

- 서울시는 서울기록원 시 산하 사업소로 설치하였음. 조직 구성은 업무와 기능별로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로 구성함
- 기록정책과: 서울시 시정 및 시민의 기록을 수집·이관하고, 서울시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 민·관 시록관리 협력체계 구축, 지방기록 연구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함

- 보존서비스과: 기록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기록 매체별로 특화된 보존처리실과 보존서고를 운영하며, 기록열람실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온오프라인 열람 및 탐색을 제공함
-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의 인사, 조직, 예산, 계약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건축·기계·시설·전기·통신 등 서울기록원의 하드웨어를 운영함



[그림 2-4] 서울기록원 조직도

-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장 제6조에 의거하여 총 6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 서울기록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16년 시민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조사함
- 기록원은 기록을 매개하는 플랫폼이고 시민은 이 플랫폼에서 즐기고 소비하는 대상이

므로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은 기록 활동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고, 흩어져있는 기록 활동을 모아 연결하고, 이것은 큰 생태계로 전환시켜야 함

- 아카이브는 시민이 직접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콘텐츠가 많으므로, 이를 가공해서 전달하는 매개가 매우 중요함. 지역연구자, 방송 프로그램 기획자 등 기록을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룹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시민들에게 기록을 서비스하는 것임
- 서울기록원은 기록 활동을 원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아카이브 오픈소스를 이용한 기록 관리 컨설팅과 교육을 운영 중임.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사진, 구술 등의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시민참여 방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아카이브의 과제이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시민참여는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거나 시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시민참여 방법으로 기록관리 전문적 과정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즉 기록의 기술 및 평가 등 전문가에게 부여된 임무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기록의 전사, 전시 도슨트와 같은 일을 시민에게 맡길 수 있음
- 시민이 지방의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임을 표출하고, 기록하는 시민이 활동하는 장을 마련해 줌

□ 비전 및 목표

- 기록원은 공공기록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할 사회적 책임, 미래의 기록유산으로 관리 보존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라는 배경하여 구체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
- 구체적 추진목표로 ‘서울의 역사를 담은 명품 아카이브이자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의 건립을 추진함

(3) 청주 기록관

□ 개요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청주시기록관은 55만여 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기록물 보존공간임. 옛 청주서부경찰서 전경 숙소로 활용되었던 곳을 리모델링하여 문서 보존 전문 기록관으로 재탄생함
-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 통합(청주시·청원군)을 이룬 청주시의 통합 정신과 과정을 담은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됨
- 일제강점기부터 2016년까지 32만 권의 공공기록물과 2019년 수집한 300여 점의 민간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음
-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과정이 담긴 문서 등이 청주시청과 상당구청 등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30년 이상 기록물은 노후화가 심각해 첨단 보존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기존 청주시청 1층/5층, 옛 청원군청, 상당구청, 지북동 등에 행정문서가 분산 보존되어 있음
- 2017년 2월 총사업비 25억 원(시비 20억 원, 국비 5억 원)을 들여 청주시기록관 개관작업을 시작함
- 지상 3층 규모의 복대동 옛 청주서부경찰서 전경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2017년 9월 종료함
- 청주시를 홍보하고 기록문서의 중요성을 아리고 기록물에 대한 보다 전문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주시기록관을 건립함(2017.12.19.)
- 2017년 12월 중요기록물 3천 권, 60만 명을 대상으로 전산화를 진행함
- 전국 기초지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청주시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위치 및 공간 현황

-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3번길 52(복대동 60-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지상 3층(2,286.35㎡) 규모로 기록홍보관, 보존서고, 사무실, 행정자료실, 세미나실, 전산화 작업실 등으로 구성됨
- 1층(기록홍보관): 청주시가 보관하고 있던 공공기록물을 활용해 지역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전시공간, 기록매체와 공문서 변천사, 기록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됨
- 중요 전시물로는 ‘1915년 분묘대장’, ‘1923년 호적주’, ‘1940년 농지개혁법’, ‘1950년 청주시 도시 시가도’, ‘1965년 청주시 울량천 수해 복구인력동원서’ 등이 있음



[그림 2-5] 행정자료실, 기록홍보관 및 전시구성

□ 조직구성 및 운영

- 청주시기록관은 기록물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해당부서의 장을 기록관 장으로 임명함
- 기록관은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전체적인 행정문서를 보관 및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기록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와 관리와 보존업무, 공인관리, 행정정보공개 및 행정박물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함

〈표 2-4〉 청주시 기록관의 조직 및 업무

부서	직위	
기록물관리팀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관리팀 업무 총괄
	주무관 (기록연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 추진 • 지방기록발전방향 세미나, 포럼 등 추진 • 기록문화발전협의 운영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 정비 및 운영 • 주요기록 관리 • 행정 간행물, 시정 일지 작성 • 기록물 평가, 폐기 • 기록물 관리 이관 • 기록물관리 교육·지도·감독 • 분류기준표 작성 및 관리 등

2) 해외 사례

(1)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

□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 미국

- 미국 기록관리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각 국가기록청(NARA)과 주립 기록물관리기관(State Archives)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됨
- 50개주 전체에 주 기록보존소가 설립됨
 - 주 단위 이하 County 또는 City도 자치단체인 경우는 기록보존소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주에만 기록보존소가 있고 영구보존 기록관리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 개요

-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California State Archives)은 The Secretary of State라는 기관의 소속으로 영구보존기록물만 관리함. 일반적인 기록물관리는 DGS(Department of Genral Service)에서 관리하여 업무가 명확히 구분됨
-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에서 기록물 처리하는 절차는 ‘평가 → 이관 → 정리 → 보존 처리 → 기술’ 순으로 수행
 - 기록물 수집범위는 주정부와 주지사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정책기록과 행정기록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정책기록은 각 기관에서 특별히 진행하는 업무이며, 행정기록은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업무임

□ 위치 및 주요기능

- 위치: Sacramento 시의 ‘O’ Streets 10번가
- 운영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토, 일 휴관)
- 주요 업무: 소장기록물 관리,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접근, 고객 서비스, 인턴쉽 프로그램 등

- 1986년부터 구술사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주 정부에 속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들에게 제공함
- 인터뷰 대상은 의회의 임원, 사법기관 인물, 정치 및 공공행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로 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선정함



[그림 2-6]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

자료: 이재민 외, 2021

□ 조직구성

-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의 조직은 최고관리자 1명(Chief), 부서장 1명(Deputy Chief), 기록 관리자 11명(Archivist), 보존전문가 1명(Preservation Technician), 마이크로필름 전문가 2명(Microfilm Technician), IT전문가 1명, 기록관리 인턴 3명, 업무보조 4명, 일반행정직, 사무 보조직 7명으로 다양한 전문역량을 보유한 31명이 근무하고 있음
- 최고관리자는 대외적으로 필요한 홍보 및 총괄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부서장은 주로 기록관 내부 업무를 담당함

□ 운영프로그램

- 연구지원(자료조사 서비스, 복사서비스), 투어프로그램, 워크숍, 초청강연,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 제공, 분기별 뉴스레터 발행, 전문교육

(2) 햄프셔주 기록소(영국)

□ 개요

-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독자적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함으로써 기록자치를 실현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법원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영국의 국가 기록관리기관에서 관리
- 중앙정부 기록관리 기구로는 TNA(The National Archives), 스코틀랜드의 National Archives of Scotland, 북아일랜드의 Public Record Office of Northern Ireland가 있음. 지방정부 기록관리 기구는 주로 광역단위 수준의 기록관리 기관을 설치 및 운영
- 잉글랜드 지역에는 약 100여 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존재하고,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26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존재
- 영국은 1958년,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통해 기록보존소와 공공기록물의 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대법관의 소관으로 규정하여 운영함
-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거나 대법관에 의해 지정된 위탁보존시설에 보존된 공공기록물은 생산 후 50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햄프셔 주 기록보존소는 행정 체계 구성상 자치정부 산하에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본부의 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부서임
- 영국의 자치정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기관의 주요기능 중 하나로, 단순한 문서수발 업무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름
- 조직부서의 구성도 단순히, 총무, 서무가 아닌 자치정부의 교육, 도서관, 문화유산 등을 담당하는 국의 소속으로 과 단위 수준으로 격상하여 부서를 조직함
- 영국 국가기록원(TNA)은 민간기록물은 수집하지 않지만, 공공도서관과 지방정부의 기록보존소는 민간기록물을 기증·위탁 형식으로 수집하고 보존 관리를 진행함
- 햄프셔 주 기록보존소는 지역의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기록보존과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지역 기록물을 폭넓게 수집하고 있음

□ 위치 및 주요 기능

- 위치: Sussex St, Winchester SO23 8th 영국
- 주요서비스: 이용자 교육지원 서비스
 - 학교의 재정지원, 규칙, 급식, 휴일 현황, 지도 등 학교 전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짐
 - 학생들에게 원본 자료, 사진과 필름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많은 도움을 줌
- 주 기록보존소의 열람 목록은 키워드 기반 검색과 'A to Z' 서비스를 활용하여 접근하도록 지원
- 온라인 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록보존소에서 소장 중인 10,000여건의 사진과 자료 15,000여 건의 디지털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음

□ 조직구성

- 주 기록보존소의 조직은 최고관리자가 총괄함. 기록관리, 필름오디오, 보존처리, 열람서비스 등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총 42명이 근무함
- 관리자급(최고관리자 1명, 교육분야 1명, 지원 분야 1명, 출판분야 1명, 기록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아키비스트가 8명, 기록관리 서비스 직원 4명, 영화필름과 사운드 기록담당 직원 3명, 기록물 보존처리분야 직원 3명, 이용자 서비스 분야 등) 15명이 근무
- 이용자 서비스 분야의 근무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시민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음

(3) 캐나다 국립도서기록청

□ 개요

- 2004년 캐나다 국립도서관과 국립 문서 보관소가 통합되어 캐나다 국립도서기록청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이 건립됨. LAC는 하나로 결합된 형태의 국립기록관임
 - 캐나다의 기록과 문화를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함
- LAC는 캐나다 정부·개인 소장의 원문 기록, 지도, 미술작품, 사진, 비디오와 필름, 녹음, 건축도면, 우표 등을 포함한 기록물 약 2,500만 점을 보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희귀 도서를 비롯해 약 2,000만 권의 도서와 약 500만 점의 건축 관련 기록물, 학위 논문과 정기간행물 등을 소장함
 - 인터넷 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약 3,000만건의 사진 이미지, 450만 메가바이트의 전자정보, 55만 시간의 오디오 비디오 기록, 9만 편의 영상기록과 약 42만 점의 예술 작품 등을 보유하고 있음
- LAC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원나 각종 보존처리 및 디지털화 작업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 위치 및 주요기능

- 위치: 395 Wellington St. 오타와
- 국립 도서관과 문서 보관서의 조직과 기관장은 그대로 두고, 예산도 분리된 상태에서 두 기관 사이에 차관보급의 통합추진제를 설치해 2005년 6월부터 단독 기관장 취임
- LAC는 연방정부기관과 행정부 기록의 영구보존시설로서 역할을 제공하며 공공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촉진의 기능을 수행함
- 캐나다 정부의 공공기록물을 보존하고 국가정체성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공헌하기 위함
- LAC는 'Discover the Collection: Canada's Continuing Memory'에서 각 주제별

로 ‘Virtual Exhibition’을 두어 이용자들에게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LAC 웹사이트의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10개 웹사이트 중 가장 인기있는 사이트임. 2015-2016년 사이 약 1,500만 명이 웹사이트에 방문함
-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장품을 홍보하고 있음

□ 조직구성

- LAC는 크게 행정지원 분야, 정책개발 분야, 기록관리 분야, 홍보·협력분야 등 4개 분야로 조직을 구성함
- LAC 전체 직원의 약 82.56%가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함

〈표 2-5〉 LAC 업무 기능별 인력구조

구 분	인력(명)
행정지원 분야	134
정책개발 분야	23
기록관리분야	904
홍보협력분야	34
계	1,095명

3. 시사점

■ 국내사례: 건립시 기존 시설 활용, 전시 관람 & 시민 참여 확대 추세

- 국내에서 건립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기록원의 경우 신규 설립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경상남도 기록원, 청주 기록원의 사례와 같이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하여 건립됨
- 적절한 기록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재 보존 수요량과 향후 기록물 생성량을 파악하였음
- 경남 : 기존 건물 리모델링, 기록의 날 재정, 도민 참여 이벤트, 전시 관람 기능과 도민 참여 확대
- 서울 : 수집·기록화·재구성한 소장기록 컬렉션 제공, 도시 개발 기록 전시, 시민 활동 확대, 문화 접근성 확대
- 기록원 운영을 위한 전문직 공무원 활용, 중장기적 운영 방향 설정 필요

■ 국외사례: 연구 지원 기능 강화, 시민 문화공간,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 확대

-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 : 연구 지원 기능 확대, 투어프로그램, 워크숍, 초청강연,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 제공, 뉴스레터
 -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에 대한 접근서비스, 고객 서비스,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 연구자 등을 위한 기록물 공유서비스를 제공함
- 영국 햄프셔 주 기록보존소 : 교육, 도서관 업무와 함께 담당하여 교육, 연구 중점, 시민 문화공간 활용 확대, 기록물 접근성 향상(웹 이용 강화)
 - 햄프셔 주 기록보존소는 자치정부의 교육, 도서관 업무 등을 관리하는 국의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음
- 캐나다 국립도서기록청 : 가상 전시공간(Virtual Exhibition) 전시 서비스 제공, 홍보 강화하여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으로 소장기록물 활용과 시민과 소통 확대

제3장

설립 적정성 검토

제3장 설립 적정성 검토

1. 규모의 적정성

1) 시설의 적정 규모 산정

- 충남 기록원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2023년 충청남도 중요기록물 보존 수량은 1,077,852권으로 매년 31,198권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제시됨
- 현 시점에서 충남 기록원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수량은 2023년 기준 약 100만~150만권 정도로 판단됨

〈표 3-1〉 영역별 도입가능 및 면적

구분	보존기간별(종이기록물)					기타기록물			전자기록물
	계 (A=B+C+D)	영구 (B)	준영구 (C)	30년 (D)	연평균생산량 (‘18~’22년 5년 평균)	시청각 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계	1,077,852	201,525	625,077	250,679	31,198	12,361	30,735	8,160	3,344,328
도	109,336	32,235	47,575	27,246	2,280	3,593	14,327	3,118	411,703
천안시	172,045	13,047	123,576	35,422	7,743	91	7,959	1,209	1,902,057
공주시	78,726	13,307	51,956	13,463	2,210	802	501	959	81,783
보령시	44,610	3,135	32,480	8,995	405	0	0	0	170,487
아산시	75,360	13,787	48,460	13,113	5,500	0	0	75	5,775
서산시	80,549	22,332	42,915	15,302	521	220	127	379	171,673
논산시	124,893	27,121	77,350	20,422	1,429	4,762	5,591	1,554	0
계룡시	19,520	3,406	12,454	3,660	709	904	262	379	5,471
당진시	54,743	16,772	35,321	2,650	3,406	0	0	0	50,617
금산군	57,179	6,793	15,312	35,074	1,000	0	0	0	70,743

구분	보존기간별(종이기록물)					기타기록물			전자기록물
	계 (A=B+C+D)	영구 (B)	준영구 (C)	30년 (D)	연평균생산량 (‘18~’22년 5년 평균)	시청각 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부여군	50,615	14,431	29,273	6,911	1,994	0	0	96	70,000
서천군	55,032	10,873	30,183	13,976	620	1,181	1,685	181	73,577
청양군	16,785	3,454	12,102	1,229	473	461	26	12	81,033
홍성군	39,649	7,709	19,677	12,263	450	0	0	0	107,238
예산군	56,434	11,658	29,942	16,543	718	0	0	162	140,099
태안군	42,376	1,465	16,501	24,410	1,740	347	257	36	2,072

- 충남 기록원의 경우 기록 물량이 150만권일 경우 16,500㎡, 100만권일 경우 9,990㎡ 정도로 규모를 추정함
- 건립 후 증가하는 기록 물량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거나 전자기록물등으로 저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사례의 경우 현재 개관 초기 단계로 예측 수요량보다 적은 규모로 건립하고, 향후 증가하는 기록물량에 따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표 3-2〉 사례검토에 따른 적정규모 산정수요 추정 결과

(단위: %, 명)

구분	경남기록원		서울기록원		평균원 단위 (㎡/권)	충남기록원	
	면적	㎡/권	면적	㎡/권			
보존수요량	56만권	-	130만권		-	150만권	100만권
보존서고	2,695	0.0048	5,500	0.0042	0.0045	6,800	4,100
작업공간	720	0.0013	1,710	0.0013	0.0013	2,000	1,220
사무·이용공간	630	0.0011	1,610	0.0012	0.0011	1,800	1,120
공용공간	2,414	0.0043	4,683	0.0036	0.0039	5,900	3,550
합계	6,459		13,503			16,500	9,990

〈참고〉

1. 경남기록원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33-1
- 건축 규모
 - 6,915.2㎡ (본관 6584.2㎡, 별관331㎡)
- 도입 기능
 -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의 전문화 및 표준화
 - 중요기록물 이관을 위한 계획수립/이관
 - 전자기록관리 강화 및 중요기록의 안전한 보존체계 구축
 - 도내 공공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
 - 민간(도민)기록관리 업무의 활성화
 - 선진적인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
 - 신속하고 다양한 기록정보 자원화
 - 적극적인 서비스로 기록이용 추진

[표] 영역별 도입기능 및 면적

영역구분	총면적 (㎡)	도입기능	비율 (%)
보존공간	2,694.5	일반서고(2,256), 민간기록보존(1,015), 자기매체보존(85.75), 필름매체보존(68.4), 행정박물보존(1,827)	39.0
작업공간	720	탈산소독실(40.5), 하역인수실(52.2), 평가,분류실(98.8), 수선작업실(5,285)	10.4
민원공간	610	기록전시실(162.8), 교육/회의실(119), 기록체험장(48.9), 열람실 등(113.8), (별)회의실(165.5)	8.8
업무공간	184.9	사무실(184.9)	2.7
부대공간	2,705.8	기계,전기,통신. 소화약제실,계단. 통신실,공조실. 엘리베이터,복도. 화장실 등, (별)휴게실 등	39.1
종합	6,915.2		100.0

자료: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3개년(2020~2022) 기본계획

2. 서울 기록원

- 위치
 - 은평구 녹번동 산1-61 외
- 건축 규모
 - 건축 연면적 : 25,000~30,000m²
- 도입기능
 - 문서고, 기록검색·열람실, 기록물 정리·기술 업무공간, 보존처리실, 기록전시실, 사무공간, 시민서비스 등

[표] 영역별 도입기능 및 면적

영역구분	총면적 (m ²)	도입기능	비율 (%)
서고영역	12,700	일반 문서고, 간행물 서고, 전자 기록물 서고, 행정 박물 서고, 시청 각 기록물 서고	42.6
기록물 인수 작업 영역	1,950	평가업무, 정리기술, 편철제본, 인수등록, 탈산소독, 하역업무	6.5
기록원 관리 업무 영역	3,020	아카이브 연구소(960), 기록관리운영국(1,205), 기록시민소통국(855)	10.1
시민 서비스 영역	2,200	열람서비스(600), 교육서비스(600), 전시서비스(700), 기타서비스 (300)	7.4
주차영역	3,770	-	12.7
기계전기	1,700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총별공조실 등	5.7
보안영역	200	방재센터, 당직실	0.7
일반공용	4,260	-	14.3
종합	29,800		100.0%

자료: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연구보고서

2. 경제적 적정성

- 경제적 적정성은 시설의 수요와 편익을 추정함
- 시설 수요의 파악은 유사 기능과 규모의 시설을 고려하여, 지역별 잠재수요를 파악하여 시설의 적정한 수요를 추정함
- 경제적 적정성 판단을 위한 편익의 추정은 기록원과 유사 기능들의 편익 추정 방법을 준용함
- 기록물관리원과 관련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기본계획 수립시에 수행되고 있음(예, 서울, 대구, 전북 등). 그러나 구체적인 비용, 편익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이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유사 사업의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편익 산정 내용을 참조하고자 함
 - 유사사업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부산 분관건립(2010), 국립박물관단지 조성(2015), 국가문헌보존관 건립(2021)이 있음
- 각 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립중앙도서관 부산 분관건립(2010)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중 비사용가치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해 추정함. 이용객 수요는 중력모형을 이용해 추정함
 - 국립박물관단지 조성(2015): 국립박물관단지의 수요는 중력모형을 이용해 추정함.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의 서비스에 대한 총 지불의사액을 추정함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2021): 대체 편익방법을 사용함. 즉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체되는 시설의 비용 또는 사업의 편익으로 계산됨. 여기서는 사업 미시행시 비용을 추정하여 편익으로 대체함

1) 수요 추정

(1) 수요 추정 방향

- 충남기록원 연간 예상 수요추정은 기록원에 보관할 기록물(장서량 등)에 따른 예측을

하지 않고 시설을 방문할 방문객수를 추정하며, 전시·관람시설의 방문객수 추정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중력모형을 이용함

- 일반적으로 문화공연시설의 수요예측 기법은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시계열 모형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함수로 나타내어 수요를 예측하는 인과모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시계열모형은 나이브(NAIVE), 추세분석법,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분해법, ARIMA 등이 있으며, 인과모형은 중력모형, 여행비용접근법 등이 있음
- 시계열모형은 과거의 명확한 자료를 근거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신규 조성되는 본 시설의 특성상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수요예측 방식은 부적절하며, 최근 문화관광시설의 수요예측에는 중력모형을 이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함
- 중력모형은 관광객의 거주지(Origin)와 관광목적지(Destination)간의 거리나 여행시간이 관광객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임

(2) 중력모형 추정방법

-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력모형이 많이 활용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추정방법의 적절성 및 기존 연구사례와 일관성을 가짐
 - 편익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여행과 관련된 거리비용(distance cost) 및 시간비용(time cost)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이용객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중력모형을 적용하면 해당 이용객의 출발지(origin)가 어디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다른 수요 추정 기법은 확률적(stochastic)기법인 반면에 중력모형은 확정적(deterministic) 기법이라 불확실성을 불편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함
 - 중력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문조사, 문헌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정부승인 통계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
-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수요를 추정하는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A = \left(\alpha \cdot \sum \left[P_i \cdot \frac{1}{\gamma_i^2} \right] \right) \cdot \rho$$

A: 특정 시설의 평균 이용인원

α : 기준시설의 거리를 감안한 잠재인구 중 이용비율

P_i : 각 지역(시·도)의 인구

γ_i : 지역에서 특정시설(평가 및 기준시설)까지의 거리(시간)

ρ : 기준시설 대비 평가시설의 규모 비율

[그림 3-1] 중력모형 산출식

(3) 중력모형을 이용한 방문객 수요추정

■ 수요추정을 위한 준거시설 선정

- 본 절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충남기록원에 대한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고자 함. 기본적으로 2022년 인구와 유사시설의 평균 이용 인원을 바탕으로 이용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충남기록원에 적용하여 이용객 수를 예측함
 -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준거시설을 설정하는 것인데, 준거시설의 위치나 규모에 따라 분석결과에 편차가 존재하는 한계가 있음
 - 즉 설정된 준거시설이 수도권과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면 분석대상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게 예측되며, 유사시설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위치하면 분석대상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예측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 기능 및 입지 유사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다음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의 입수 가능성, 대상 시설과의 규모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준거시설을 설정함
- 따라서 준거시설은 평가대상 시설인 충남기록원에 도입되는 기능을 고려하여 대통령기록관, 천안박물관, 안성3.1운동기념관 등으로 설정함
 - 조성되는 시설은 단순한 문서자료 보관 및 열람기능 외에 전시, 교육, 회의 등 도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문화복합 기능이 도입되는 특성이 있어 기록원의 기능과 도서관, 박물관 등과 유사한 시설로 볼 수 있음
 - 본 시설과 유사시설인 타 지역의 기록원은 방문객수가 제공(승인통계로 제시되지 않음)되

지 않아 준거시설에서 제외하고, 도입되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준거시설로 선정함

〈표 3-3〉 수요산정을 위한 준거시설 선정

구분	대통령기록관	천안박물관	안성3.1운동기념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주요기능	기록물보존, 열람, 전시, 교육	수장고, 전시, 공연, 강의	전시, 체험, 교육
규모(연면적)	31,000	6,616	1,237

- 분석에 사용되는 준거시설의 연도별 이용객(관람객)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준거시설별 연도별 이용객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준거시설의 운영 연차에 따라 방문객 수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특정 연도를 사용하지 않고 최근 5년간의 평균 방문객 수를 사용함

〈표 3-4〉 준거시설의 방문객 수 현황

(단위: 명)

연도	대통령기록관	천안박물관	안성3.1운동기념관
2018		162,330	58,654
2019		163,588	88,337
2020		35,123	15,284
2021	33,067	52,068	42,092
2022	61,318	79,394	43,133
평균	47,193	98,501	33,5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준거시설별 이용률

- 본 평가시설의 준거시설인 대통령기록관, 천안박물관, 안성3.1운동기념관의 이용객 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에서 해당 시설까지의 이용률(α)을 도출함

① 대통령기록관 이용률

- 대통령기록관의 이용률 a 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서 대통령기록관에 이르는 시간을 파악하고, 각 시·도에서 시설에 이르는 거리가 1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 거리 및 인구수에 기준한 잠재 이용객수의 값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 시설에 대한 전체 매력도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시간 거리를 1로 적용함
- 각 시·도에서 대통령기록관까지 이동하는 잠재인구는 다음과 같음

〈표 3-5〉 지역별 인구수를 적용한 잠재인구 산정: 대통령기록관

구분	2022년 인구(명)	소요시간(분)	소요시간(시)	잠재인구
서울특별시	9,428,372	95.00	1.58	3,760,902
부산광역시	3,317,812	199.00	3.32	301,612
대구광역시	2,363,691	127.00	2.12	527,577
인천광역시	2,967,314	105.00	1.75	968,919
광주광역시	1,431,050	128.00	2.13	314,440
대전광역시	1,446,072	30.00	1.00	1,446,072
울산광역시	1,110,663	187.00	3.12	114,341
세종특별자치시	383,591	10.00	1.00	383,591
경기도	13,589,432	78.00	1.30	8,041,084
강원도	1,536,498	161.00	2.68	213,394
충청북도	1,595,058	31.00	1.00	1,595,058
충청남도	2,123,037	54.00	1.00	2,123,037
전라북도	1,769,607	75.00	1.25	1,132,548
전라남도	1,817,697	154.00	2.57	275,920
경상북도	2,600,492	118.00	1.97	672,348
경상남도	3,280,493	180.00	3.00	364,499
합계(제주제외)	50,760,879			22,235,341

자료: 2022년 인구는 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인구 자료를 활용

- 대통령기록관의 2022년 기준 전국 인구에 대한 잠재인구는 31,182,331명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인구 중 이용비율은 0.21%로 나타남

〈표 3-6〉 대통령기록관 이용률 산출

준거시설	평균 이용객수	잠재인구(2022)	잠재인구 중 이용비율
대통령기록관	98,501	31,182,331	0.21%

② 천안박물관 이용률

- 천안박물관의 이용률 α 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서 천안박물관에 이르는 시간을 파악하고, 각 시·도에서 시설에 이르는 거리가 1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 거리 및 인구수에 기준한 잠재 이용객수의 값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 시설에 대한 전체 매력도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시간 거리를 1로 적용함
- 각 시·도에서 천안박물관까지 이동하는 잠재인구는 다음과 같음

〈표 3-7〉 지역별 인구수를 적용한 잠재인구 산정: 천안박물관

구분	2022년 인구(명)	소요시간(분)	소요시간(시)	잠재인구
서울특별시	9,428,372	68.00	1.13	7,340,428
부산광역시	3,317,812	212.00	3.53	265,756
대구광역시	2,363,691	135.00	2.25	466,902
인천광역시	2,967,314	78.00	1.30	1,755,807
광주광역시	1,431,050	132.00	2.20	295,671
대전광역시	1,446,072	60.00	1.00	1,446,072
울산광역시	1,110,663	195.00	3.25	105,152
세종특별자치시	383,591	45.00	1.00	383,591
경기도	13,589,432	50.00	1.00	13,589,432
강원도	1,536,498	128.00	2.13	337,609
충청북도	1,595,058	40.00	1.00	1,595,058
충청남도	2,123,037	50.00	1.00	2,123,037
전라북도	1,769,607	143.00	2.38	311,535
전라남도	1,817,697	158.00	2.63	262,126
경상북도	2,600,492	127.00	2.12	580,431
경상남도	3,280,493	191.00	3.18	323,724
합계(제주제외)	50,760,879			31,182,331

자료: 2022년 인구는 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인구 자료를 활용

- 천안박물관의 2022년 기준 전국 인구에 대한 잠재인구는 32,798,619명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인구 중 이용비율은 0.32%로 나타남

〈표 3-8〉 천안박물관 이용률 산출

준거시설	평균 이용객수	잠재인구(2022)	잠재인구 중 이용비율
천안박물관	33,503	32,798,619	0.32%

③ 안성3.1운동기념관 이용률

- 안성3.1운동기념관의 이용률 α 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서 안성3.1운동기념관에 이르는 시간을 파악하고, 각 시·도에서 시설에 이르는 거리가 1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 거리 및 인구수에 기준한 잠재 이용객수의 값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 시설에 대한 전체 매력도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시간 거리를 1로 적용함
- 각 시·도에서 안성 3.1운동 기념관까지 이동하는 잠재인구는 다음과 같음

〈표 3-9〉 지역별 인구수를 적용한 잠재인구 산정: 안성3.1운동기념관

구분	2022년 인구(명)	소요시간(분)	소요시간(시)	잠재인구
서울특별시	9,428,372	54.00	1.00	9,428,372
부산광역시	3,317,812	212.00	3.53	265,756
대구광역시	2,363,691	155.00	2.58	354,185
인천광역시	2,967,314	65.00	1.08	2,528,362
광주광역시	1,431,050	157.00	2.62	209,006
대전광역시	1,446,072	77.00	1.28	878,033
울산광역시	1,110,663	216.00	3.60	85,699
세종특별자치시	383,591	67.00	1.12	307,625
경기도	13,589,432	36.00	1.00	13,589,432
강원도	1,536,498	116.00	1.93	411,073
충청북도	1,595,058	58.00	1.00	1,595,058
충청남도	2,123,037	70.00	1.17	1,559,782
전라북도	1,769,607	109.00	1.82	536,199

구분	2022년 인구(명)	소요시간(분)	소요시간(시)	잠재인구
전라남도	1,817,697	183.00	3.05	195,399
경상북도	2,600,492	125.00	2.08	599,153
경상남도	3,280,493	215.00	3.58	255,485
합계(제주제외)	50,760,879			32,798,619

자료: 2022년 인구는 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인구 자료를 활용

- 안성3.1운동기념관의 2022년 기준 전국 인구에 대한 잠재인구는 32,798,619명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인구 중 이용비율은 0.32%로 나타남

〈표 3-10〉 안성3.1운동기념관 이용률 산출

준거시설	평균 이용객수	잠재인구(2022)	잠재인구 중 이용비율
안성3.1운동기념관	47,193	22,235,341	0.10%

(4) 충남기록원 수요 추정 결과

- 2025년을 충남기록원의 설립 시점으로 가정하여 설정했을 때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잠재이용객 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699,969명으로 도출됨
- 이용률 산정 방법과 같이 각 시·도에서 충남기록원에 이르는 거리가 1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 거리 및 인구수에 기준한 잠재 이용객 수의 값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 시설에 대한 전체 매력도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시간 거리를 1로 적용함

〈표 3-11〉 충남기록원 잠재이용인구 산정

(단위: 명)

구분	2025년 기준 인구(명)	소요시간(시)	잠재인구 산정
서울특별시	9,209,988	1.62	3,523,856
부산광역시	3,209,584	3.90	211,018
대구광역시	2,296,188	2.70	314,978
인천광역시	2,959,375	1.43	1,440,475
광주광역시	1,439,236	2.23	288,553
대전광역시	1,438,281	1.05	1,304,563

구분	2025년 기준 인구(명)	소요시간(시)	잠재인구 산정
울산광역시	1,085,017	3.93	70,132
세종특별자치시	427,317	1.00	427,317
경기도	14,002,605	1.30	8,285,565
강원도	1,524,370	2.73	204,035
충청북도	1,639,888	1.42	817,107
충청남도	2,198,168	1.00	2,198,168
전라북도	1,741,421	1.50	773,965
전라남도	1,737,587	2.58	260,367
경상북도	2,596,343	2.80	331,166
경상남도	3,253,138	3.62	248,706
합계(제주제외)	50,758,506		20,699,969

자료: 2025년 추계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를 활용

- 준거시설과의 비교에 의한 수요추정시 시설의 매력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의 매력도를 반영해야함. 기록원과 같은 시설의 매력도는 시설의 규모로 볼 수 있는데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면적을 매력도 적용 지표로 설정함
- 연면적 규모 추정 결과 기록물 보존 수요량 100만권일 경우 9,990㎡, 150만권일 경우 16,500㎡으로 추정됨
- #1. 기록물 보존 수량 150만권일 경우와 #2. 100만권일 경우의 규모를 반영하여 추정함

■ #1. 기록물 보존 수량 150만권일 경우

- 본 시설의 연면적을 준거시설의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각 준거시설의 이용률을 이용하여 도출한 본 평가시설의 수요에 적용하여 최종수요를 도출함
 - 충남기록원의 준거시설인 대통령기록관의 연면적 31,000㎡의 0.532배인 16,500㎡의 규모로 지어질 것이므로 대통령기록관에 의한 수요는 23,384명으로 추정됨
 - 충남기록원의 준거시설인 천안박물관의 연면적 6,616㎡의 2.94배인 16,500㎡의 규모로 지어질 것이므로 천안박물관에 의한 수요는 163,075명으로 추정됨
 - 충남기록원의 준거시설인 안성3.1운동기념관의 연면적 1,237㎡의 13.33배인 16,500㎡

의 규모로 지어질 것이므로 안성3.1운동기념관에 의한 수요는 281,986명으로 추정됨

- 준거시설별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추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충남기록원의 최종 방문객수요를 156,149명으로 도출함

〈표 3-12〉 중력모형을 이용한 충남기록원 수요추정 결과

(단위: %, 명)

준거시설	대통령기록관	천안박물관	안성3.1운동기념관
관람비율	0.21%	0.32%	0.1%
시설면적비율(매력도)	53.2%	249.4%	1,333%
준거시설별 도출수요	23,384	163,075	281,986
최종수요	156,149		

자료: 연구진 작성

■ #2. 기록물 보존 수량 100만권일 경우

- 본 시설의 연면적을 준거시설의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각 준거시설의 이용률을 이용하여 도출한 본 평가시설의 수요에 적용하여 최종수요를 도출함
 - 충남기록원의 준거시설인 대통령기록관의 연면적 31,000㎡의 0.322배인 9,990㎡의 규모로 지어질 것이므로 대통령기록관에 의한 수요는 14,158명으로 추정됨
 - 충남기록원의 준거시설인 천안박물관의 연면적 6,616㎡의 1.51배인 9,990㎡의 규모로 지어질 것이므로 천안박물관에 의한 수요는 98,735명으로 추정됨
 - 충남기록원의 준거시설인 안성3.1운동기념관의 연면적 1,237㎡의 8.07배인 9,990㎡의 규모로 지어질 것이므로 안성3.1운동기념관에 의한 수요는 170,730명으로 추정됨
- 준거시설별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추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충남기록원의 최종 방문객수요를 94,541명으로 도출함

〈표 3-13〉 중력모형을 이용한 충남기록원 수요추정 결과

(단위: %, 명)

준거시설	대통령기록관	천안박물관	안성3.1운동기념관
관람비율	0.21%	0.32%	0.1%
시설면적비율(매력도)	32.2%	151.0%	807.4%
준거시설별 도출수요	14,158	98,735	170,730
최종수요	94,541		

자료: 연구진 작성

- 준거시설별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추정 결과 156,149명~94,541명 으로 분석됨

3) 시설의 편익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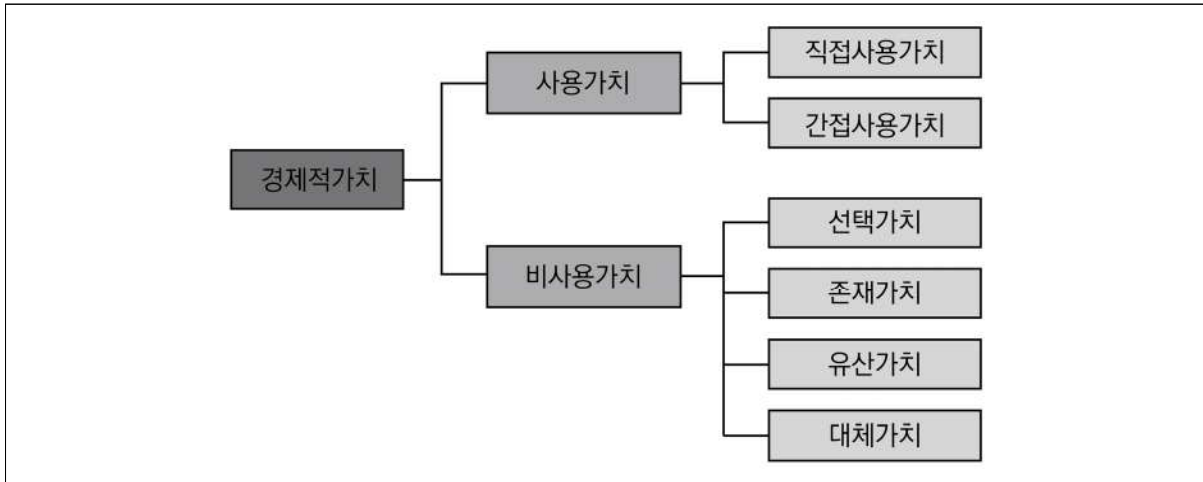
(1) 편익 추정 개요 및 방법

■ 편익의 종류

- 경제학적으로 재화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되며, 재화가 주는 총가치(Total value)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으로 산출됨
- 사용가치란 개인이 재화를 물리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여하는 가치로 다시 직접사용가치와 간접사용가치로 분류됨
- 비사용가치는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이 물리적으로 재화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며, 크게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 대리소비가치(Vicarious value)로 분류됨
- 현재는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지만, 미래에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선택가치라고 함
- 존재가치란 비록 직접적인 편익을 얻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지 아는 것과 관련된 가치를 의미하며, 제공되는 효용이 대상 재화의 어떠한 직·간

접적인 상호작용에도 연결되지 않음을 전제

- 유산가치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재화를 보존하는 것 자체에 부여하는 가치를 의미
- 대체가치란 자신은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얻는 만족감에서 얻는 가치를 나타냄



[그림 3-2] 경제적 가치의 종류

자료: KDI공공투자관리센터(2015), 문화·관광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참고하여 재작성.

■ 충남 기록원의 편익

- 충남 기록원의 편익(경제적 가치)은 충남 기록원이 조성됨에 따라 일정 기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현재가치화한 값으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가진 개인들의 선호로부터 도출되며 서비스에 부여하는 화폐가치의 합으로 정의됨
 - 이러한 화폐가치의 합은 충남 기록원 조성 사업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총지불의 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로 도출됨
- 충남 기록원 조성의 경제적 가치 유형에는 크게 사용가치 또는 이용가치 (Use value) 와 비사용가치 또는 비이용가치(Non-use value)로 분류됨
 - 사용가치란 충남 기록원의 직접적인 물리적 이용 및 간접적인 이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으로 충남기록물 관련 교육 및 전시와 다양한 체험 등이 포함됨
 - 비사용가치는 직·간접적 이용과 관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부터 발생하는 편익

■ 편익 추정 방법

- 공공재 공급 수준 증가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크게 시장적 방법(Market methods), 현시선호방법(Revealed preference methods), 진술선호방법(Stated preference methods) 등으로 분류됨
- 시장적 방법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실제 시장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 재화의 공급량 변화에 따른 편익은 시장 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재화의 매매에 대한 정보를 알면 대상 재화의 가치를 직접 추론할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 전시·문화시설, 환경관련 사업 등 적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 시장에서 평가되는 시장의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론을 이용하여 대상 재화의 가치를 추정할 수밖에 없음
- 현시선호법은 관련 시장에서 개인들이 실제로 행한 선택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대상 재화의 가치를 추론하는 방법임
 - 여기에는 휴양수요모형(Recreation demand model), 특성임금모형(Hedonic wage model),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회피행위모형(Averting behavior model) 등이 있음
- 진술선호법은 설문에서의 가상의 선택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 재화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임
 - 여기에는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 및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CA)이 있음
- 진술선호법의 장점은 설문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적절하게만 작성한다면, 평가하고자 하는 재화와 그 재화의 공급상황에 대해 다양한 상태를 쉽게 지정할 수 있는 것임
 - 특히 현재의 제도적 준비 또는 공급 수준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의 편익을 사전적으로 측정하는 데 용이함
- 또한, 평가대상 재화가 이용가치 이외에 비이용가치가 상당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시선호법에 의해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대상 재화의 비이용가치 및 총가치 추정을 위해 진술선호법이 사용될 필요가 있음

〈표 3-14〉 편익 추정 방법

접근법	주요분석모형	적용대상
시장적 방법	• 피해함수(Damage Function)	• 사고, 홍수 피해 등의 피해 비용 •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편익
	•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 비용함수(Cost Function)	
현시 선호법	• 휴양수요모형(Recreational Demand Models)	• 위락시설 및 공공시설의 편익
	• 특성임금모형(Hedonic Wage Model)	• 사망위험성 및 질병위험성 감소 편익
	•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 기반시설 및 전시·문화시설의 편익
진술 선호법	• 회피행위모형(Averting Behavior Model)	• 피해 회피용 사업 및 피해 회피와 관련된 사업의 편익
	• 조건부가치평가법/가상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 모든 종류의 편익
	•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CA)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	• 모든 종류의 편익

자료: KDI공공투자관리센터(2015), 문화·관광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참고하여 재작성.

-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묘사된 가상적인 재화에 대해 일정 금액의 지불의사 또는 최대지불의사금액을 질문하는 방식임
 - 이 방식에 대한 자세한 개괄을 위해서는 Mitchell and Carson(1989), Hanemann(1991), Kopp et al.(1997) 및 Carson(2000)을 참고할 수 있음
 - 미국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소집한 유명 경제학자를 포함한 패널은 이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방법이 우려를 회피할 수 있도록 실행된다면 충분히 믿을만한 추정치들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 (NOAA, 1993)
- 한편, 선택실험법은 다른 속성(attributes)과 가격을 지닌 유사한 상품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2개 이상의 선택 대안 중에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여, 그로부터 평가대상 재화의 속성 및 수준별 가치를 도출하는 방식임
 - 이 방식은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비해 각 속성 및 수준별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가치측정방법임

-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상 재화의 속성 및 수준을 분할하여 측정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가치 평가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선택실험법은 대상 재화의 속성 및 수준에 따른 가치 평가를 목적으로 함
반면에 선택실험법은 대상 재화의 속성과 수준 및 선택대안의 수가 많아질 경우 응답자들에게 인지상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식이 되어 신뢰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충남 기록원의 사용가치 이외에 비사용가치가 중요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그 이유는 대상 재화인 충남 기록원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단순히 사업이 조성되었을 때 직접 방문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용가치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습지복원사업에 대한 가치가 과소평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즉, 충남 기록원 사업의 올바른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록 지금 당장은 충남 기록원을 방문할 계획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정한 선택가치와 비록 충남 기록원에서 기록물을 관람하지 않더라도 충남 기록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하는 존재가치, 그리고 충남 기록원 사업으로 인한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 비사용가치 등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충남 기록원 사업의 속성 및 수준을 분할 하기보다는 총체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충남 기록원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진술선호법 중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였음

(2) 편익 추정 개요와 항목 설정

- 충남 기록원 조성이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현재가치화한 값이 충남 기록원 조성의 편익(경제적 가치)임
- 이러한 가치는 충남기록원 조성으로 인한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가진 개인들의 선호로부터 도출될 수 있음
- 따라서 충남 기록원 조성의 경제적 가치는 동 시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가구 또는 개인들이 충남기록원 조성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부여하는 화폐가치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화폐가치의 합의 충남 기록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총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과 같음

■ 편익항목 선정

- 본 시설조성에 따른 편익항목은 시설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총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과 시설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회의 비용 측면에서 편익을 검토함
- 총지불의사금액(WTP)을 적용한 편익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않고, 기존 유사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편익을 산정함
- 또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규모의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공간활용에 대한 대체편익으로 반영하여 산정함
 - 대체편익은 사업대상지 주변의 오피스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표 3-15〉 편익항목 선정

구 분	편익항목	적용여부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지불의사금액(WTP)	유사시설 사례 조사단가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대체편익(공간활용 편익)	시설 미조성시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간임대 비용	주변 오피스 임대료 적용

(3) 편익추정 결과

■ 지불의사금액 반영

- 지불의사금액 반영을 위해 2014년 평가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WTP산정 결과를 적용하였음
 - 지불의사금액 조사시점이 2014년이고 편익의 분석시점은 2022년 말 기준이므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보정함($107.71/94.196=1.143$)
- 대상사업은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어린이박물관 등 5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입시설별 지불의사금액을 활용함

- 참고한 사례의 지불의사금액은 다음표와 같으며 5개 시설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조사시점의 가격을 조정하였음
- 또한 대상시설의 수혜자를 전국과 충남도로 구분하여 산정한 결과 전국민이 수혜자로 판단할 경우 연간 총편익은 전국기준 382억원, 충남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16.6억원로 도출됨

〈표 3-16〉 WTP 적용에 따른 총편익 산정(전국)

구 분	평균 WTP('14) (원/가구/년)	평균 WTP('22) (원/가구/년)	가구수(전국) (가구)	연간 총편익 (백만원)	5년간 총편익 (현재가치) (백만원)
국가기록박물관	2,081	2,380	22,308,987	38,239	175,422
디자인박물관	1,003	1,147			
도시건축박물관	1,054	1,205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816	933			
어린이박물관	2,545	2,910			
평균	1,499	1,714			

자료: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KDI, 2015.의 WTP 활용

〈표 3-17〉 WTP 적용에 따른 총편익 산정(충남도)

구 분	평균 WTP('14) (원/가구/년)	평균 WTP('22) (원/가구/년)	가구수(충남) (가구)	연간 총편익 (백만원)	5년간 총편익 (현재가치) (백만원)
국가기록박물관	2,081	2,380	969,995	1,662	7,624
디자인박물관	1,003	1,147			
도시건축박물관	1,054	1,205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816	933			
어린이박물관	2,545	2,910			
평균	1,499	1,714			

자료: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KDI, 2015.의 WTP 활용

- 산정된 총편익에 따라 30년간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는 전국 대상이 995억원, 충남지역이 43억원으로 도출되었으며, 30년간 편익흐름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상의 매년 편익은 5년간 총 편익을 30년으로 분할하여 현재가치로 도출된 현금 흐름임

〈표 3-18〉 연도별 편익 현금 흐름

연도	전국 총편익(백만원)		충남 총편익(백만원)	
	편익	현재가치	편익	현재가치
2023	5,847	5,847	254	254
2024	5,847	5,596	254	243
2025	5,847	5,355	254	233
2026	5,847	5,124	254	223
2027	5,847	4,903	254	213
2028	5,847	4,692	254	204
2029	5,847	4,490	254	195
2030	5,847	4,297	254	187
2031	5,847	4,112	254	179
2032	5,847	3,935	254	171
2033	5,847	3,765	254	164
2034	5,847	3,603	254	157
2035	5,847	3,448	254	150
2036	5,847	3,300	254	143
2037	5,847	3,157	254	137
2038	5,847	3,021	254	131
2039	5,847	2,891	254	126
2040	5,847	2,767	254	120
2041	5,847	2,648	254	115
2042	5,847	2,534	254	110
2043	5,847	2,425	254	105
2044	5,847	2,320	254	101
2045	5,847	2,220	254	96
2046	5,847	2,125	254	92
2047	5,847	2,033	254	88
2048	5,847	1,946	254	85
2049	5,847	1,862	254	81
2050	5,847	1,782	254	77
2051	5,847	1,705	254	74
2052	5,847	1,632	254	71
합계	175,422	99,534	7,624	4,326
2054				

■ 공간활용 편익(대체 편익)

- 공간활용편익은 대상지 주변 업무시설을 선정하여 본 시설과의 입지평가를 통해 산정된 월임대료(공간 활용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으로 반영)에 시설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① 비교사례 선정

- 비교사례 업무시설은 사업대상지 주변에서 규모 및 입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시설 2개소와 복합상가 1개소로 총 3개로 선정함
- 비교사례의 임대료에 의해 편익이 결정되는 특성으로 지역의 평균을 반영하고자 사례 선정시 임대료를 고가, 중가, 저가 시설을 포함하여 선정함

〈표 3-19〉 업무시설 비교사례 개요

구분	충남 기록원	오피스1	오피스2	복합상가
위치	-	홍북읍 신경리 일원(내포 신도시 내)		
	5F	2/7F	2/7F	2/7F
보증금(계약기준, 천원/3.3㎡)	-	1,332	318	661
임대료(계약기준, 천원/3.3㎡)	-	53	22	40
관리비(계약기준, 천원/3.3㎡)	-	-	-	-
월세환산임대료(계약기준, 천원/3.3㎡)	-	62	24.4	44.2

자료: 부동산114

- 주: 1) 월세환산가는 오피스 전월세전환율(8.3%) 적용
 2) 월세환산가 = 보증금 × 전환율/12 + 월임대료

② 공간활용 편익 산정을 위한 비교가격 산정

- 사업지 주변 업무시설의 비교가는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입지평가에 따라 산정함
- 평가항목별 점수에서 시설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빌딩 노후도, 빌딩 명성 및 관리수준에 대해서만 차등을 두고 평가함
- 사업지 주변 업무시설 적정 월임대료는 사례시설의 임대료에 환산점수를 반영하여 계약면적기준 48천원/3.3㎡으로 산정됨

〈표 3-20〉 업무시설 비교가 산정

평가항목 및 가중치			충남 기록원	오피스1	오피스2	복합상가
물리적특성	빌딩규모	9.4%	4	5	5	5
	빌딩노후도	10.6%	5	3	3	3
입지성	권역구분	18.0%	5	5	5	5
	교통접근성	18.0%	4	4	4	4
	접면도로	9.0%	4	4	4	4
관리수준	빌딩명성	6.0%	5	4	4	4
	쾌적성	2.9%	5	4	4	4
	임대관리	4.6%	5	4	4	4
	관리체계	3.6%	5	4	4	4
기능성	주차시설	9.0%	5	4	4	4
	plate형태	9.0%	5	4	4	4
환산점수			4.64	4.17	4.17	4.17
월 임대료 (계약면적기준)	비교사례 월세환산임대료(천원/3.3㎡)			62.0	24.4	44.2
	비교가격(천원/3.3㎡)			69.0	27.2	49.2
	사업지 적정 월임대료(천원/3.3㎡)			48.0		

자료: 서계동 복합문화관광시설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KDI, 2015. 시설 비교 가격 산정 사례 적용

③ 업무시설 편익 산정 결과

- 공간활용 편익은 25년부터 운영종료 시점까지 연간 1,741백만원이 발생하면 30년 운영기간 총 편익은 52,219백만원으로 산정됨

〈표 3-21〉 공간활용 편익 산정

(단위: 백만원, 3.3㎡)

구분	2025년	2026년	...	2054년	총계(30년) (현재가치)
개발 후 업무시설 면적(a)	9,990	9,990	...	9,990	52,230 (29,635)
오피스 월 임대료(b)	0.048	0.048	...	0.048	
월 편익(c=a/3.3*b)	145.054	145.054	...	145.054	
연간 편익(d=c*12월)	1,740.650	1,740.650	...	1,740.650	

- 산정된 공간활용편익에 따라 30년 동안의 총편익은 현재가치로 296억원으로 산정되며 연도별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음

〈표 3-22〉 공간활용에 따른 연도별 총편익

연도	총편익(백만원)	
	편익	현재가치
2023	1,741.0	1,741.0
2024	1,741.0	1,666.0
2025	1,741.0	1,594.3
2026	1,741.0	1,525.6
2027	1,741.0	1,459.9
2028	1,741.0	1,397.1
2029	1,741.0	1,336.9
2030	1,741.0	1,279.3
2031	1,741.0	1,224.2
2032	1,741.0	1,171.5
2033	1,741.0	1,121.1
2034	1,741.0	1,072.8
2035	1,741.0	1,026.6
2036	1,741.0	982.4
2037	1,741.0	940.1
2038	1,741.0	899.6
2039	1,741.0	860.9
2040	1,741.0	823.8
2041	1,741.0	788.3
2042	1,741.0	754.4
2043	1,741.0	721.9
2044	1,741.0	690.8
2045	1,741.0	661.1
2046	1,741.0	632.6
2047	1,741.0	605.4
2048	1,741.0	579.3
2049	1,741.0	554.3
2050	1,741.0	530.5
2051	1,741.0	507.6
2052	1,741.0	485.8
합계	52,230	29,635

제4장

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제4장 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요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07년)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책정된 기록물에 대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
- 기록원의 기능적 역할 확대로 본 기능인 기록물 수집, 관리외에도 전시, 교육, 연구·교류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서울기록원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와 강연, 견학·투어 프로그램이 진행중임
- 충남은 내포 신도시 내 충남도서관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이 일부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 대응에 제한적인 상황임
 - 유사시설인 박물관과 도서관의 경우 관리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라는 차이에서 정보에 대한 제공서비스 방법과 운영프로그램, 활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황금숙, 2008)
- 타 지자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경상남도는 시설과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경기도는 2024년 2월 개원 예정, 경상북도는 시설 설치가 진행중임
- 기록원 설립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 시설 설치가 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
- 이러한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록원 설립과 관련한 타 지역의 추진 현황과 사례, 추진 방향을 조사함
 - 둘째, 기록원 설립을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이용 수요와 효과, 시설 규모 등의 기초 분석으로 적정성을 검토함

- 기록원 추진 현황으로 강원, 전남, 제주는 부지선정, 조성 방식(신축, 유희부지 활용, 리모델링)등의 사항 논의 중
- 충남의 경우 기초조사 연구(2018) 후 후속 추진이 부재한 상황
- 국내외 기록원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기록물 보관과 활용이외에 기록물에 대한 접근서비스, 고객 서비스, 인터넷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 연구자 등을 위한 기록물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민들을 위한 전시, 교육,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시설 설립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규모와 시설의 편익을 추정함
- 충남 기록원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2023년 충청남도 중요기록물 보존 수량은 1,077,852권으로 매년 31,198권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제시됨
- 현 시점에서 충남 기록원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수량은 2023년 기준 약 100만~150만권 정도로 판단됨
- 적정 규모의 경우 기록 물량이 150만권일 경우 16,500㎡, 100만권일 경우 9,990㎡ 정도로 규모를 추정함
 - 건립 후 증가하는 기록 물량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거나 전자기록물등으로 저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사례의 경우 현재 개관 초기 단계로 예측 수요량보다 적은 규모로 건립하고, 향후 증가하는 기록물량에 따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경제적 적정성은 시설의 수요와 편익을 추정함
- 시설 수요 추정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2022년 인구와 유사시설의 평균 이용 인원을 바탕으로 이용객 수를 추정함
- #1. 기록물 보존 수량 150만권일 경우 156,149명, #2. 기록물 보존 수량 100만권일 경우 방문객수요를 94,541명으로 추정함
- 편익의 산정은 충남 기록원 조성 사업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총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와 대체 편익을 활용하여 추정함

- 유사 사례 시설의 WTP를 활용하여 시설의 편익을 추정한 결과 연간 총편익은 전국 기준 38,239억원, 충남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16.6억원로 도출됨
- 대체편익으로 활용한 공간활용 편익은 대상지 주변 업무시설을 선정하여 본 시설과의 입지평가를 통해 산정된 월임대료(공간 활용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으로 반영)에 시설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 공간활용 편익은 25년부터 운영종료시점까지 연간 1,741백만원이 발생하면 30년 운영기간 총 편익은 52,219백만원으로 산정됨

2. 정책 제언

- 충청남도 기록원 건립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위하여 타 지역 사례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요, 시설 규모, 시설의 편익을 추정하였음
- 기록원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 시설 설치가 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
- 이에 따라 타 지자체들은 시설 건립시 비용 절감을 위하여 건물의 신축 보다는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시설의 활용시 기존 행정과 관련된 지역 기록물 보관뿐만 아니라 기록물을 활용하여 전시, 교육,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기록물은 2023년 기준 107만권 정도로 매년 3.1만권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향후 기록물량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충청남도, 2018.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추진 기초조사 연구.
- 문순덕, 김석운, 2020.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 및 방향 설정 연구.
- 전라북도, 2020. 전라북도 지방기록관리기관 설치 기본계획.
- 서은경, 2005. 국립기록원 기록물평가정책 비교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vol. 36, no. 4, pp. 1-22.
- 김용동, 2017.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이윤용, 2017. 「지방기록물관리를 위한 지방기록원 설립에 관한 연구」,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1.
- 황금숙, 2008. 「도서관에서의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 39, no. 3, 2008, pp. 90-93.
- 김지호, 윤은하, 202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 운영과 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기록원과 경남기록원을 중심으로, 기록학 연구, no.71, pp. 272-309.
- 김형성, 김재형, 2021. 고양시 기록관 설립 방향성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윤은하, 2021. 민간기록관리와 아카이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록학 연구, no.69. pp. 35-62.
- 안규진, 이재영, 2021. 도입하고 싶은 해외기관의 기록물 보존정책,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32.
- 이재민, 송양호, 조우제, 유병준, 2021. 기록자치 실현방안으로서 세종기록원 조성운영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이재호, 201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 계획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대구광역시, 2019. 대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KDI, 2010.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사업(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사업).
- KDI, 2015.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KDI, 2021.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집필자

연구 책임 임 형 빈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수시전략연구 2023-09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적정성 검토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2023년 12월 31일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041-840-1114(대표)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http://www.cni.re.kr>
ISBN 000-00-0000-000-0

© 2023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